

청소년 학교중퇴의도 영향요인 :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박재은** · 정슬기***

초 록

본 연구는 아이젠(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서 청소년 학교중퇴에 대한 개입과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237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 가지 변수인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중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학교중퇴 관련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 가지 변수들이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 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만이 학교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모형이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학교중퇴의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미약했던 이론적 근거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제어 : 학교중퇴, 학교중퇴의도, 청소년, 계획된 행동이론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I. 서 론

한국의 청소년은 여러 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청소년에 관련된 사회문제가 다양해지고 그 심각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화·세분화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학교중퇴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교육이나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학령기에 학업을 중도에 탈락하거나 포기·거부하는 경험은 청소년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결국 비행이나 일탈로 연결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된다(김준호·노성호, 1993). 이는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도 유희인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학교교육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제반 문제들을 유발시키게 된다(표갑수, 1993). 청소년들의 범죄가 그들의 중퇴와 관련 있다는 국외 연구(Vitaro et al., 2001)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 중퇴는 가족에게도 하나의 위기경험으로 작용한다(김민, 2001).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사회에서 ‘학교중퇴’라는 쟁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지 못하고 소수 비행청소년의 문제나 가정의 책임으로만 여겨져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퇴율이 보고되어 왔기 때문이다(박현선, 2003).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중퇴율은 2009년 2.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한국교육개발원, 2010) 이 같은 비율은 미국의 10.3%의 중퇴율(Laird et al., 2004)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전부터 빈곤·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일탈 및 비행청소년들이 학습에서 밀려나는 등 경제적 문제와 청소년 비행이 학교중퇴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학교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증가하고 있고(김순규, 2002; 박래영, 2005), 중퇴행동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등 여러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학교중퇴현상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성은 경제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빈곤비행 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학업중도탈락의 경우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 중도탈락자와 개인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자발적인 중도탈락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김민, 2001; 박래영, 2005). 이러한 잠재

적 중퇴자들은 학교에 규칙적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높고 또 이것은 학교중퇴로 이어질 수 있는데(Walker et al., 1998), 잠재적 중퇴자에 대한 개입은 중퇴 후 사후대책에 비해 훨씬 적은 사회적 비용만으로 '정상화'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잠재적 중퇴자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전통적 중퇴와 중퇴행동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써 일반적인 학교중퇴의 원인이나 실태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많다(김경식, 1997; 김순규, 2002; 신현숙·구본용, 2002; 조아라, 2000). 이들 연구가 학교중퇴의 양상이나 결과 등을 알리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기여했지만, 거의 모든 연구가 중퇴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잠재적 중퇴자를 대상으로 학교중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학교중퇴를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그 개인의 의도에 근거한다는 아이젠(Ajzen, I., 1987)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학교중퇴행동을 탐색하고자 한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내·외적)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그 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론을 학교중퇴의도에 적용한다면 청소년의 학교중퇴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환경과 관련한 요인과 함께 아이젠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는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교중퇴 관련요인(부모 및 가족요인, 친구요인, 학교환경)을 고려했을 때에도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는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통해 학교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요인을 밝히고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대해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중퇴에 대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개입과 학교중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중퇴와 관련된 선행연구

청소년의 학교중퇴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또래,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부모 및 가족관련 요인은 청소년의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데(Janosz et al., 1997; 유성경·이소래, 1998), 이는 구조적, 기능적,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가족의 형태(Janosz et al., 1997)에 따라 중퇴 비율에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중퇴경험한 가족구성원의 존재, 부모의 음주나 폭력 문제, 가족관계, 부모의 교육적 기대수준, 자녀 양육방식, 부모-자녀 관계, 학업에 대한 부모의 관여정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유성경·이소래, 1998; 구자경 외, 2001). 가족소득(구자경, 2003)이나 부모의 교육수준(Janosz et al., 1997)도 중퇴와 관련한 요인으로 언급된다.

친구 혹은 또래관련 변수도 청소년의 중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은 어른들과의 유대감이 낮은 반면 또래집단과의 연대감이 강하므로(Barclay et al., 1969, 김민, 2001, 재인용) 학교중퇴를 결정하는데 있어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퇴친구가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학교중퇴를 할 확률이 4.3배 높았다(Vitaro et al., 2001; 구자경, 2003; 정규석 & Bronson, 2000). 학교환경 역시 청소년의 중퇴행동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아왔다. 외국의 경우에는 학교중퇴요인 중 가족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Suh et al., 2007; 정규석 & Bronson, 200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중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규, 2002; 조아미, 2002; 신현숙·구본용, 2002; 박창남·도종수, 2003).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 부족, 학습에 대한 낮은 기대, 교사와 잘 지내지 못하거나 교사가 학생을 격려해주지 않는 것 등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중퇴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신현숙·구본용, 2002; 조아미, 2002), 다음으로 학업이 지적되고 있다(Vitaro et al., 2001; 김순규, 2001).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학교중퇴의도나 자퇴생각에 대한 연구들도(조아미, 2002; 박창남·도종수, 2003; 구자경, 2003), 공통적으로 학교요인(교사, 학교교칙,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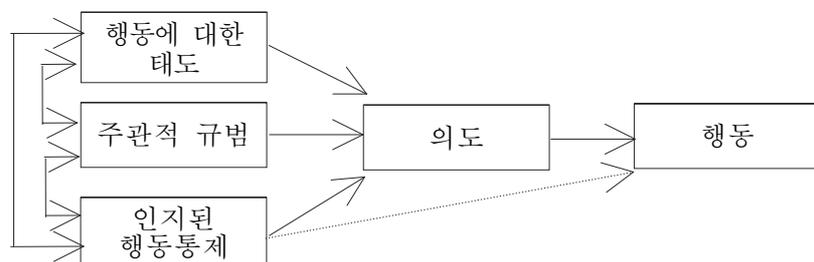
적)이 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외 요인으로는 가정요인(어머니 학력, 부부관계, 가족갈등, 가정의 월수입), 친구 또는 또래요인(불량친구, 자퇴친구유무) 등이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의 영향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하면 첫째, 최근 다각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학교중퇴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중퇴요인에서 벗어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민(2001)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는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와 달리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낮지 않고, 중퇴 이후 삶에 대한 만족, 낙관적인 미래상과 구체적인 직업관, 높은 학습의지와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또래친구들과 친밀한 관계, 가족 간의 높은 애착과 친밀도,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와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변수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중퇴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이론적 기반은 매우 유용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중퇴행동 뿐만 아니라 학교중퇴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이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중퇴의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에 기반하여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학교중퇴 현상을 설명하고 예방하는데 의미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2. 계획된 행동 이론

계획된 행동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서 결정적 요인을 보여주는 데 주로 사용되는 이론으로(Ajzen et al., 2001), 행동에 대한 결정요인은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도(intention)라는 것인데 강한 의도를 가진 개인은 목표를 성취하려는 노력을 하고 행동을 수행하려는 동기화가 더 잘 된다는 것이다(Norman et al., 2005). 따라서 행동목표를 수행하거나 행동을 계획하려는 개인의 의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의 행동을 더욱 더 잘 예측할 수 있다(Ajzen & Driver, 1992). 계획된 행동이론의 이론적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아이젠과 드라이버(Ajzen & Driver, 1992)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변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는 개인이 어떤 행동에 대해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 평가를 하는 정도로 정의되는데 한 개인이 행동 또는 대상물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나 일반적인 느낌의 정도를 말한다(Ajzen, 1991). 주관적 준거(subjective norm)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실행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중요한 주변인물로부터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을 개념화한 것이다(Rivis & Sheeran, 2003). 즉,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다(허태균 외, 2004). 인지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행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과 용이함을 지각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예상되는 장애물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도 반영한다고 한다. 의도와 위의 세 가지 독립요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동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행동을 존중하는 주관적 준거일수록, 인지된 행동통제가 클수록,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도는 강해진다(Ajzen & Driver, 1992).



출처: Ajzen & Driver, 1992, p.210.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 모델²⁾

계획된 행동이론을 인간의 다양한 행동에 적용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수가 폭음, 흡연, 컴퓨터규칙이행 등의 행동의도를 얼마나 지지하는가에 대한 설명력에 대한 연구(Broadhead-Fearn & White,

2)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에 선행하는 행동신념과 행동결과평가, 준거신념과 동기부여, 통제신념과 영향력 인식을 다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이젠과 드라이버(1992)가 연구한 모델을 적용하여, 이 선행요인들을 연구의 영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인지된 행동통제는 의도와 함께 행동적 성취를 직접적으로 예측한다(Ajzen, 1991).

2006; 김명소 외, 2004; 차동필, 2005)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된 행동이론이 설명한 행동의도가 실제로 축구선수의 탈락행동, 식이요법행동, 사냥 등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사후검증연구(Ajzen et al., 2001; Nache et al., 2005; Nejad et al., 2004)이다. 이렇듯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 계획된 행동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계획된 행동이론의 약점 혹은 한계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이젠과 드라이버(Ajzen & Driver, 1992)는 계획된 행동이론이 선행하는 변수에 대해 발생가능한 행동의 피드백 효과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이론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론의 예측요인들(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준거, 인지된 행동통제)은 행동과 의도의 정도를 충분히 가정하지만 이러한 예측요인 모두가 여러 가지 행동과 의도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예측요인들에 대한 지적도 있다. 우선 ‘주관적 준거-의도’의 관계는 ‘태도-의도’와 ‘인지된 행동통제-의도’의 관계보다 약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의도-주관적 준거’의 약한 관계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주관적 요인에 대해 한정적으로 개념화했기 때문이라며 이론적 한계를 지적하였다(Armitage & Conner, 2001). 이에 대해 아이젠(Ajzen, 1991)은 주관적 준거-의도 연계의 부족함은 의도가 개인적 요인(태도, 인지된 행동통제)에 의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인지된 행동통제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인지된 행동통제를 측정할 때 두 가지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Trafimow et al., 2002)하고 있다. 인지된 통제는 행동을 금지하는 외적요인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고 인지된 어려움은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용이한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이젠(Ajzen, 2002)은 인지된 행동통제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적(자기효능감)과 외적(통제감)의 기준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여 인지된 행동통제에 대한 논쟁은 정리되지 않았다.

이렇듯 계획된 행동이론의 한계점과 약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된 행동이론은 사람들이 왜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대한 유효한 모델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다(Courneya & Bobick,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청소년의 중퇴의도에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절차

본 연구의 모집단은 9세~24세 청소년 중 서울시 중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 재학생과 대안학교 재학생이며, 중학교 2개 학교 84명, 인문계 2개 학교 84명, 실업계 2개 학교 64명, 대안학교 2개 학교 30명 등 총 8개 학교의 재학생 262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 학생들의 명단 중 무작위 표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표본들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용과 시간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유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대상 학교의 중학생 2, 3학년과 고등학생 1, 2학년 중 학년 별로 1개 학급을 무작위 선정하였고, 대안학교에서는 협조해준 2개 학교의 전교생 중 설문에 동의한 학생에게 설문하였다. 설문조사는 우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총 256부 중 무성의한 답변을 한 19부를 제외한 23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주요변수

1) 학교중퇴의도

본 연구에서 학교중퇴의도는 학교를 그만두려는 생각 혹은 의향인데, 아이젠과 드라이버(1992)의 연구와 아이젠과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주제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나는 학교를 그만 둘 의향이 있다’, ‘나는 학교를 그만 두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학교를 그만 두기 위해 시도할 것이다’ 등 총 3문항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척도로 측정한다. 아이젠과 드라이버(1992)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99이고, 아이젠과 동료들(2001)의 신뢰도는 .88~.9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alpha = .94$ 로 안정적이었다.

2)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들이 학교중퇴행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이다. 아이젠과 드라이버(1992)와 아이젠과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된 7점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이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쁘다 - 좋다’, ‘즐겁지 않다 - 즐겁다’, ‘해롭다 - 이롭다’, ‘현명한 선택이다 - 어리석은 선택이다’, ‘유익하지 못하다 - 유익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 바람직하다’, ‘매력적이지 않다 - 매력적이다’이다. 이 중 ‘현명한 선택이다 - 어리석은 선택이다’ 문항만 역산하고 7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아이젠과 동료들(2001)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 = .91$ 로 나타났다.

3)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행동 수행에 대한 주변인들의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을 인지하는 것으로(Ajzen, 1991), 중퇴행동에 대한 주변인물의 반응을 청소년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아이젠과 동료들(2001)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나에게 소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찬성할 것이다.’, ‘부모님(또는 형제·자매 또는 친구·선배·후배)은 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찬성할 것이다.’ 등 총 4문항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아이젠과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4로, 본 연구는 $\alpha = .93$ 으로 나타났다.

4) 인지된 행동통제

인지된 행동통제는 청소년이 학교를 중퇴하고자 할 때 그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한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며, 아이젠과 동료들(2001)의 척도를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의 여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주변상황을 보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쉬운 것이다’의 3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로 측정한다. 아이젠과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alpha = .74$ 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5) 학교중퇴 관련요인

(1) 부모 및 가족요인

부모의 교육적 지원·기대와 부모·자녀 관계 등의 두 가지 변수로 측정되었다. 우선 부모의 교육적 지원·기대는 김순규(2001)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정서적 지지(4문항)와 물질적 지지(2문항) 등 총 6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적 지원·기대는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님의 교육적 지원과 기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순규(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3으로, 본 연구에서는 $\alpha = .70$ 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허드슨(Hudson, 1982, 김용석·박명숙, 2000, 재인용)이 개발하고 김용석·박명숙(2000)이 변안한 CATP(Child Attitude Toward Parents)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용석·박명숙(2000)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7으로, 본 연구에서는 $\alpha = .92$ 로 나타났다.

(2) 친구요인

친구요인으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중퇴친구 유무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김순규(2001)의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총 12문항이며 결석, 흡연, 음주, 징계, 범죄, 가출 등 6개의 비행과 관련된 친구 혹은 선후배가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척도이다. 결석에 관련된 2문항을 역산하고 총합이 높을수록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는 김순규(2001)의 연구에서 .80으로,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퇴친구 유무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 답변하도록 했다.

(3) 학교환경

학교에 관련된 변수로는 학업태도와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우선 학업태도는 김준호·노성호(1993)가 개발하고 이상균(1999)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첫 번째 문항만 역산하여 각 문항별 총합을 계산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헌신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상균(1999) 연구의 신뢰도는 .6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3이었다. 또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

기 위해 구자경 외(2001)가 사용한 척도에서 교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아본 정도(2문항), 교사를 공정하다고 지각한 정도(2문항), 교사에 대한 존경심(1문항), 교사에 대한 적대감(1문항)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부당한 처벌과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아주 미워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선생님이 있다' 등의 문항만 역산하고, 총합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alpha = .69$ 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검정, ANOVA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중퇴의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학교중퇴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중퇴경험이 있는 집단과 중퇴경험이 없는 집단 간 t-검정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시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 재학생 237명이며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37)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19	50.2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	상	10	4.2
	여	118	49.8		상중	29	12.2
연령	14세	1	0.4		중	141	59.5
	15세	45	19.0		중하	40	16.9
	16세	47	19.8	하	13	5.5	
	17세	81	34.2	학업성적	상	22	9.3
	18세	62	26.2		상중	54	22.8
	19세	1	0.4		중	78	32.9
					중하	55	23.2
학교형태	대안학교	27	11.4	중퇴경험	있음	25	10.5
	중학교	75	31.6		유무	없음	211
	인문계고교	76	32.1	어머니학력	초등학교	5	2.1
	실업계고교	59	24.9		중학교	10	4.2
아버지학력	초등학교	4	1.7		고등학교	113	47.7
	중학교	10	4.2		대학교	77	32.5
	고등학교	74	31.2		대학원	15	6.3
	대학교	100	42.2		모름	17	7.2
	대학원	30	12.7		양친동거 여부	동거	183
	모름	18	7.6	비동거		48	20.3

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분석

주요변수들에 대해 기술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중퇴의도는 평균 5.94(sd=4.59)로 나타났다(〈표 2〉).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19.06(sd=9.41)로 나타나 중퇴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의 평균은 7.19(sd=4.97)로 주변인들이 대체적으로 본인의 중퇴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지된 행동통제는 8.47(sd=4.71)로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학교를 중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N=237)

구분	변수	평균, 명	표준편차, %	점수범위
종속변수	학교중퇴의도	5.94	4.59	3~21
독립변수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19.06	9.41	7~49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7.19	4.97	4~28
	인지된 행동통제	8.47	4.71	7~21
	학교중퇴 관련요인			
	부모의 교육적 지원·기대	18.39	3.75	6~24
	부모·자녀 관계	22.31	6.89	11~44
	비행친구와의 접촉	22.27	9.50	12~48
	중퇴친구 유무 ³⁾	있음 107 없음 130	45.1 54.9	
	학업태도	8.46	2.04	3~12
	교사와의 관계	15.9	4.80	6~30

3) 주요 변수 중 ‘중퇴친구 유무’는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빈도와 비율을 제시하였다.

학교중퇴관련 요인인 부모의 교육적 지원·기대는 평균 18.39(sd=3.75)로 대체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의 평균은 22.31(sd=6.89)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은 관계를 보여주었다.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중퇴친구가 있는 학생(45.1%, 107명)이었는데 이는 많은 학생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중퇴를 인지하고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업태도의 분석결과 평균 8.46(sd=2.04)으로 학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볼 수 있다. 교사와의 관계 역시 평균 15.9(sd=4.80)로 긍정적인 방향임을 보여주었다.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중퇴의도 비교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학교중퇴의도 차이를 비교해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교 이상인 집단의 학교중퇴 의도는 어머니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13, p<.05$).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은 경우 자녀가 느끼는 학업과 관련한 압박이 높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중퇴한 친구가 있는 학생들의 학교중퇴의도는 중퇴한 친구가 없는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t=4.63, p<.001$), 이는 자퇴한 친구가 없는 경우보다 자퇴한 친구가 있는 중고등학생의 학교자퇴 생각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결과(구자경, 2003; Vitaro et al., 2001; 정규석 & Bronson, 2000)와 일치한다. 성별, 연령, 아버지 학력,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중퇴의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중퇴의도 차이(N=237)

구 분		학교중퇴의도 (평균, 표준편차)	t, F	비 고
어머니학력	고등학교이하	5.42(3.84)	t=-2.13 *	
	대학교이상	6.85(5.54)		
중퇴친구 유무	있음	7.47(5.57)	t=4.63 ***	
	없음	4.68(3.08)		

*p<.05, **p<.01, ***p<.001

4. 학교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회귀모형은 총 4개로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델 1은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세 가지 변수들이 학교중퇴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중퇴에 대한 주변의 규범이 관대할수록, 중퇴를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할수록 중퇴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설명력은 66.5%(adjusted $R^2 = .665$, $F=66.518$, $p<.001$)로 나타났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학교중퇴 관련요인 중 부모 및 가족요인(부모의 교육적 지원·기대, 부모·자녀 관계)을 분석에 포함하였는데, 이 변수들은 학교중퇴의도 변량의 66.7%를 설명하였다(adjusted $R^2 = .667$, $F=52.501$, $p<.001$).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연령,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수정된 설명력 66.7%는 1단계의 수정된 R^2 값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 및 가족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 가지 변수들이 학교중퇴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여 준다. 다음 모델(모델 3)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 가지 변수에 친구요인(비행친구와의 접촉, 중퇴 친구유무)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만이 학교중퇴의도를 예측하였다. 학교중퇴의도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66.7%($R^2 = .667$, $F=51.631$, $p<.001$)이고, 수정된 R^2 값은 .664로 모델 1의 수정된 R^2 값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 변수가 학교중퇴의도 변량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4는 모델 1에 학교환경(학업태도, 교사와의 관계)을 추가한 모형인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연령,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로 확인되었다(adjusted $R^2 = .667$, $F=52.474$, $p<.001$). 이를 통해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 변수는 학교환경보다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학교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N=237)

변 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β	B	β	B	β	B	β
성별	-.01	-.00	.06	.00	-.02	-.00	.00	.00
연령	.30	.07	.34 *	.08	.33 *	.08	.24	.05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	.20	.01	.28	.02	.11	.00	.15	.01
학업성적	.02	.00	.00	.00	-.11	-.01	-.04	-.00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10 ***	.20	.09 ***	.18	.09 ***	.19	.09 ***	.20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51 ***	.55	.52 ***	.56	.52 ***	.55	.50 ***	.55
인지된 행동통제	.18 ***	.19	.17 ***	.18	.17 ***	.18	.17 ***	.18
부모의 교육적 지원·기대			.04	.03				
부모·자녀 관계			.06	.09				
비행친구와의 접촉					.00	.00		
중퇴친구유무					-.36	-.03		
학업태도							-.02	-.00
교사와의 관계							-.07	-.07
상수	-6.55 *		-9.32		-5.240		-5.35 **	
F	66.518 ***		52.501 ***		51.631 ***		52.474 ***	
R ²	.675		.680		.667		.680	
Adjusted R ²	.665		.667		.664		.667	

*p<.05, **p<.01, ***p<.001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이론적 모형이 학교중퇴의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즉,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제시되었던 부모 및 가족요인, 친구요인, 학교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학교중퇴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5. 학교중퇴의도와 중퇴경험 : 중퇴집단과 비중퇴집단의 비교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계획된 행동이론은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퇴를 경험한 학생들과 중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하는 간접적 검증을 통해 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표 5>).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네 가지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변수에서 중퇴집단이 비중퇴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정리해보면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높은 집단이 학교중퇴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집단은 학교중퇴를 경험한 중퇴집단이므로 학교중퇴의도가 높은 학생들이 실제로 중퇴행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중퇴의도가 높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5> 중퇴집단과 비중퇴집단의 비교(있음 N=25, 없음 N=211)

변 수 ⁴⁾	중퇴경험		t
	있음	없음	
학교중퇴의도	12.36(7.30)	5.19(3.47)	4.85 ***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27.08(10.07)	18.17(8.87)	4.68 ***
개인인 인식한 주관적 규범	14.12(7.97)	6.38(3.76)	4.79 ***
인지된 행동통제	11.88(5.69)	8.04(4.42)	3.26 **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4) 각 변수에 대한 수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음.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학교중퇴의도를 설명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먼저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대해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 가지 변수는 모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의 크기는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숙청소년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규칙을 따르는 행동의도에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결과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는 선행연구(Broadhead-Fearn & White, 2006)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중퇴행동과 관련한 이론적 기반에 근거한 개인변수를 발견하였고 이러한 변수들의 토대가 되었던 계획된 행동이론이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지목되었던 학교중퇴 관련요인들(부모 및 가족요인, 친구요인, 학교환경)이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 변수를 함께 고려할 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에서도 새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이 학교중퇴의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 가지 변수가 학교중퇴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학교중퇴현상의 변화양상과 기존 연구들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하고 다각적인 이유로 자발적인 ‘탈학교’⁵⁾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학교중퇴생각(의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중퇴행동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학교중퇴현상과 학교중퇴의도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 배경을 가진 변수를 도출하였고 이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중퇴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최근 청소년의 학교중퇴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이론적 기반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의 중요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에 대한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좀 더 다양한 청소년 집단의 학교중퇴의도 실태를 이해

5) 현재 대안학교에서는 ‘학교중퇴’라는 단어는 학생이 수동적으로 학교 밖으로 밀려났다는 의미로 간주하고, 학교중퇴 대신에 청소년 자신이 자발적으로 학교 밖으로 나왔다는 의미의 ‘탈학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중퇴의도에 대한 연구들이 극소수일 뿐 아니라 정규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최근 다양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중퇴의도를 이해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교중퇴의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계획된 행동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고, 연구대상에 대안학교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학교중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요인뿐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세 가지 요인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의 학교중퇴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와 가족,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중퇴행동에 대한 기존의 변화를 도모하고, 청소년 자신이 중퇴행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조절할 수 있는 개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학생에게는 중퇴행동에 대한 태도와 통제감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교중퇴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신의 미래나 하고 싶은 분야를 일찍 선택하여 학교중퇴를 결정하려고 하거나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서비스가 지금보다 확대되고 다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학교 재학생들의 경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다’, ‘미래에 가까이 가고 싶었다’, ‘꿈을 찾고 싶었다’ 등이 중퇴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었는데, 이는 정규학교에서는 자신의 미래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규학교 재학생들의 중퇴의도 이유에서도 ‘학교에서의 생활이 시간낭비’,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위해’, ‘다른 내 일을 하고 싶어서’, ‘뜰에 박힌 교육현실’ 등이 있었는데 정규학교의 체제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자율성 없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정규학교, 대안학교,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이 연계·관리 되어서 여러 형태의 대안학교⁶⁾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개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새로운 함의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발견되었는데, 우선 서울지역의 중고등

6) 현재 대안학교에는 학력인정이 되는 인가형(위탁형대안학교, 기숙형대안학교 등)과 비인가형(도시형 대안학교, 기숙형대안학교 중 비인가학교)이 있다.

학교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학교중퇴를 경험한 재학생들을 연구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대안학교 재학생들도 조사하였으므로 모집단과 조사대상의 하위집단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일정에 따라 설문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청소년 집단을 특성에 따라 여러 하위집단으로 나누어서 각 집단별로 학교중퇴의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이론적 모형에 대해서는 중퇴집단과 비중퇴집단으로 나누어서 학교중퇴의도의 수준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검토하였기 때문에, 의도가 행동을 얼마나 예측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력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추적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변수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들이 거시적인 요인보다는 미시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개인, 부모, 친구 등 미시적인 분야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서비스, 국가의 제도적 틀과 같은 거시적인 분야도 포함한다면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이론검증 과정에서 고려되었던 학교중퇴 관련요인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수 간의 관계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요인들의 매개효과, 조절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순환적이고 연계적인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다양한 경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척도의 높은 신뢰도(.90이상)는 각 문항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종속변수인 의도를 3개 문항으로 신뢰도 검증을 한 통계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넘어서 자발적인 중퇴현상에 대한 효과적이고 다각적인 개입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집단의 학교중퇴의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구자경·홍지영·장유진(2001). 청소년의 자퇴욕구실태와 관련특성연구. 2001년 청소년상담심포지엄자료집, pp.3-52.
- 구자경(2003).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자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309-330.
- 김경식(1997). 중고교 중퇴생과 재학생의 교내외 생활비교를 통한 중퇴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7권 제3호, pp.115-138.
- 김명소·김금미·한영석(2004).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합리적 행위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도덕적 책무의 역할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9권 제1호, pp.1-21.
- 김민(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순규(2001).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규(2002).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논집, 제28권 제3호, pp.21-39.
- 김용석·박명숙(2000). 청소년 문제 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2권, pp.83-106.
- 김준호, 노성호(1993).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래영(2005). 광복 60년 학업중단의 원인, 실태, 정책의 변화양상과 향후과제. 청소년복지연구, 제7권 제2호, pp.5-21.
- 박창남·도종수(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207-238.
- 박현선(2003).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기반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제53권, pp.75-104.
- 신현숙·구본용(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회·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3호, pp.121-145.
- 유성경·이소래(199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 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정규석 · Bronson, D. E.(2000). 미국고등학생의 학교중퇴에 관한 다체계 모델 : 모델 검증과 학교중퇴 예방프로그램에 주는 의미. *한국아동복지학*, 제9권, pp.205-225.
- 조아라(2000). 중고등학교 학업중퇴생 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2호, pp.1-22.
- 차동필(2005). 폭음행동의 이해: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과 확장. *한국언어학회지*, 제49권 제3호, pp.346-390.
- 표갑수(1993). 중고등학생의 중퇴요인과 대책: 중퇴자와 재학자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1권 제1호, pp.127-147.
-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허태균 · 한민 · 김연석(2004). 성행위시 위험감수 의사결정에서 남녀차이: 콘돔사용과 계획된 행동이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9권, 제3호, pp.69-87.
- Ajzen, I. (1987). Attitudes, traits, and actions : Dispositional prediction of behavior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0, pp. 1-63.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No. 2, pp. 179-211.
- Ajzen, I., & Driver, B. L. (1992).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24, No.3, pp. 207-224.
- Ajzen, I., Hrubes, D., & Daigle, J. (2001). Predicting hunting intention and behavior: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Leisure Sciences*, Vol. 23, pp. 165-178.
- Ajzen, I. (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8, pp. 1355-1374.
- Amitage, C.,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0, No. 4, pp. 471-499.

- Broadhead-Fearn, D., & White, K. (2006). The role of self-efficacy in predicting rule-following behaviors in shelters for homeless youth: A test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46, No. 3*, pp. 307-325.
- Courneya, K. S. & Bobick, T. M. (2000). Integra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ith the processes and stage of change in the exercise domain. *Psychology Sport Exercise, Vol. 1*, pp. 41-56.
- Janosz, M., Le Blanc, M., Bloulerice, B., Tremblay, R. E. (1997). Disentangling the weight of school dropout predictors: A test on two longitudinal sampl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6*, pp. 733-759.
- Laird, J., DeBell, M., & Chapman, C. (2004). *Dropout rates in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 Nache, C., Bar-Eli, M., Perrin, C., & Laurencelle, L. (2005). Predicting dropout in male youth soccer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Vol. 15*, pp. 188-197.
- Nejad, L, Wertheim, E., & Greenwood, K. (2004). Predicting dieting behavior by using, modifying, and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34, No. 10*, pp. 2099-2131.
- Norman, P., Clark, T., & Walker, G. (200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scriptive norms, and the moderating role of 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35, No. 5*, pp. 1008-1029.
- Rivis, A., & Sheeran, P. (2003). Social influence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vidence for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rototypes and young people's exercise behaviour. *Psychology and Health, Vol. 18, No. 5*, pp. 567-583.
- Suh, S., Suh, J., & Irene, H. (2007). Predictors of categorical at-risk high school dropou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85, No. 2*, pp. 196-203.
- Trafimow, D., Sheeran, P., Conner, M., & Finlay, K. A. (2002). Evidence that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Perceived control and perceived difficulty.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41, pp. 101-121.

Vitaro, F., Larocque, D., Janosz et al., M., & Tremblay, R. E. (2001). Negative social experiences and dropping out of school. *Educational Psychology*, Vol. 21, No. 4, pp. 401-415.

Walker, S., Grantham-McGregor, S. M., Himes, J. H., Williams, S., & Duff, E. M. (1998). School performance in adolescent Jamaican girls: Associations with health, social and behaviour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for dropout. *Journal of Adolescence*, Vol. 21, No. 1, pp. 109-122.

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s Regarding Dropping out of School among Adolescents : An Application of 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Park, Jae-Eun* · Chung, Sul-Ki**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oretical grounds for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in danger of dropping out of school by understanding the factors affecting their intentions regarding dropping out based on 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he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three variables, attitude towards dropout behavior, perceived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s, on the intention of dropping out of school among adolescents.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whether the effect of these three TPB variables hold true after controlling for factors known to influence decisions to dropout (parents and family factors, peer factors, school circumstances). The study sample included students from middle, high, and alternative schools located in Seoul. A total of 237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effect of attitudes toward dropout behavior, perceived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the intentions regarding dropping out of school among adolescent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Secondly, our findings suggested that a theoretical model of TPB can be applied to adolescents' intentions regarding dropping out of school.

Key Words : School dropout, adolescence, theory of planned behavior

투고일 : 3월 11일, 심사일 : 3월 25일, 심사완료일 : 4월 19일

* Doctoral Student, Chung-A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